



전남드래곤즈의 추상훈이 10일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넣은 뒤 동료들에게 달려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2 20라운드 충남과 원정서 후반전 '맹폭'... 추상훈 '극장골'

전남드래곤즈가 0-3 승부를 3-3으로 돌리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더했다.

전남은 10일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추상훈의 '극장 동점골'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0-3으로 끌려가던 후반 21분 노건우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 42분 발디비아에 이어 추상훈이 득점 행진을 펼치면서 극적인 무승부가 만들어졌다.

전반 14분 전남이 선제골을 내줬다. 권성현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슈팅 기회를 만든 충남아산 김민규가 페널티아크 왼쪽 부근에서 오른 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안준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공은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전반 28분 충남아산의 역습상황에서 박세직의 슈팅을 안준수가 막았고, 전반 막판 상대의 프리킥이 옆그물을 때리면서 0-1로 전반전이 마무리 됐다.

후반 4분 전남에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플라나

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바운드 된 뒤 충남아산 왼쪽 골대를 맞고 나왔다. 흐른 공을 잡은 김수범의 왼발 슈팅도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골문이 따르지 않았던 전남은 골이 두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후반 5분 백패스를 받은 골키퍼 안준수의 패스가 상대 김승호 앞으로 향하는 실수가 나왔다. 김승호가 공을 몰고 전진한 뒤 왼발 침습으로 골키퍼 키를 살짝 넘겼고, 이내 전남의 골망이 흔들렸다.

후반 17분에는 충남아산의 외국인 선수들이 전남을 울렸다.

충남아산이 새로 영입한 하파엘이 왼쪽 측면에서

보낸 공을 문전에 있던 두아르테가 왼발로 때리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후반 16분 교체 선수로 들어갔던 하파엘은 K리그 데뷔전에 나선지 1분 만에 도움을 만들었다.

0-3까지 상대가 멀어졌지만 전남은 끝까지 가는 승부를 벌였다.

후반 21분 왼쪽에서 김수범이 내준 컷백을 노건우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 득점에 성공하면서 추격의 시작을 알렸다.

후반 42분에는 발디비아가 시즌 8호골에 성공하면서 충남아산을 압박했다.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최성진이 뛰어올라

머리로 뚫었다. 뒤에서 공을 받은 발디비아 오른쪽 발로 발리 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추격전의 대미는 추상훈이 장식했다.

경기 종료 직전 전남 진영에서 골키퍼가 길게 올린 공이 충남아산 조운성의 머리에 맞았고, 박스 지역에서 상대 수비진 사이에 있던 추상훈이 공을 쫓아 움직인 뒤 오른발 발리슈팅을 선보이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3연속 실점 뒤 3연속 득점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연출한 전남은 승점 1점을 더하면서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서영 여자검도팀, 창단 첫 전국실업검도 준우승

㈜서영 여자검도팀이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창단 첫 준우승을 일궈냈다.

11일 전남검도회(회장 장동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대구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서영 여자검도팀이 여자 3인조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영은 김혜선·김다해·이정은이 조를 이룬 3인조 단체전에서 부산시체육회와 경주시청을 각각 1-0,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영은 결승에서 김해시체육회에 1-0으로 패했다.

지난 5월 창단한 ㈜서영 검도팀은 창단 이후 첫 결승전에 진출하는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남자부에서는 유하늘과 이혜솔(무안군청)이 개

인전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유하늘은 6단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정진(남양주시청)에 2-1로 패해 준우승했다. 이혜솔은 4단부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동우 전남검도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올해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란다"며 "전남검도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검도팀은 영광지역 전기공사기업인 ㈜서영(대표 장동우)에서 창단한 실업팀이다. 전남검도회장이 장동우 대표가 단장, 김창근 전남검도회 전무이사가 감독을 맡고 있다. 서영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 10번째로 창단한 여자검도팀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당구 상금 10억 시대 쿠드롱, PBA 8번째 우승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엘렉저축은행)이 프로당구 PBA에서 상금 10억 원 시대를 개척했다.

쿠드롱은 10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끝난 프로당구 2023-2024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 & 안산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에서 비틀 위마즈(튀르키예·엘렉저축은행)를 세트 점수 4-1(15-13 15-3 15-5 13-15 15-11)로 제압하고 우승상금 1억 원을 받았다.

프로 당구 다섯 시즌 동안 30개 투어에서 8차례 추대를 든 쿠드롱은 자신이 보유한 PBA 최다 우승 기록을 1회 경신했다. 또 결승에 오른 8번 모두 우승 샴페인을 터뜨려 '결승 불패' 기록도 이어갔다.

아울러 지금까지 받은 우승 상금 9억9450만원에 성적에 따른 대회 보너스를 합쳐 공식 상금을 10억 2850만 원으로 불러 PBA 출범 다섯 시즌 만에 10억 원 시대를 열어젖힌 첫 선수가 됐다.

쿠드롱은 투어 대회마다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면 받는 '엘렉트릭킹' 보너스(400만원)를 6차례 받았다.

게다가 한 번에 세트의 모든 득점을 달성하면 얻는 'TS샴푸 퍼펙트큐'(1000만원)도 한 차례 받아 보너스로만 3400만 원을 챙겼다.

PBA 상금랭킹 2위는 6억5400만 원을 번 '스페인 강호' 다비드 사파타(블루원리조트)다.

/연합뉴스



아시아 여자 주니어(U-19)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한국 여자주니어국가대표팀(U19)이 지난 10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유석우(광주시핸드볼 협회장) 선수단장, 오세일(광주도시공사핸드볼 감독) 감독과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4년만에 우승 U-19 여자 핸드볼 대표팀 금의환향 오세일 광주도시공 감독 지휘봉·유석우 시핸드볼 협회장 단장 맡아

아시아 여자 주니어(U-19)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한국 여자주니어국가대표팀(U19)이 지난 10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우승은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유석우 광주시핸드볼 협회장이 선수 단장을 맡아 일궈낸 성과여서 의미가 남달랐다.

오세일(광주도시공사)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 팀은 지난 9일 홍콩 침사추이의 카우롱 파크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에 34-15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참가하지 않은 2022년 대회를 제외하면 이 대회에서 빠짐없이 16차례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2관	엘리멘탈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4관	엘리멘탈, 악마들
5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파이어하트, 흥, 옛구
6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귀공자
9관	여름날 우리, 슬기로운 아내 수업
7관 씨네커	범죄도시3,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귀공자, 극장판 피노키오 위대한 모험
8관 씨네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2023-07-25(화)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2023-07-18(화)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3